

“사회 흐름 파악엔 신문이 최고... 광주일보 통해 세상을 봅니다”

광주일보 애독자 화순 배운수씨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광주일보를 펼쳐봅니다. 하루의 시작이죠. 신문만큼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좋은 건 없습니다.”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사는 배운수(87·사진) 씨는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광주일보를 구독한 지 벌써 30년이 넘는 것 같다”며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때부터 보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구독한 지 정확히 몇 년째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십 년째 광주일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50여 년 전 광주에서 건축자재업을 했다. 그 후 사업을 접고 고향인 화순에 정착해 아버지 농사일을 도왔다.

그는 “젊었을 땐 광주서 사업도 했지만 화순에 정착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세월이 다 갔다”며 “화순에 오래 살아인지 신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식을 모아놓은 면을 관심 있게 보게 된다”고 말했다.

유림(儒林)인 그는 화순향교 전교를 맡기도 했다. 지금도 성균관 유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눈 뜨자마자 신문 펼쳐들어 지역소식·사람이야기 풍성

신문에서 얻은 지식·정보로 많은 사람과 자연스레 소통

그는 “모임에 가면 그동안 광주일보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로 많은 사람과 소통한다”며 “신문을 보며 ‘누가 좋은 일을 했다’, ‘하루 사이 이런 일도 있었네’하며 기사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들과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재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지역 기사 다음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피플 앤 라이프’ 면 기사를 좋아한다”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풍기는 고소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종이신문의 독자가 갈수록 줄어든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신문 발전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요즘은 TV만 켜면 뉴스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 신문을 보느냐?’라고 말하는데, 순간만 보고 잊어버리는 영상매체와 달리 신문과 같은 활자매체는 다시 펼쳐보며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신문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문을 보고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의식과 안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신문은 부단히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좋은 신문은 독자를 두려워하면서 독자와 함께 가는 신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씨는 특히 “신문기사는 방송이나 인터넷 뉴스보다도 각종 문제를 더욱 깊고 날카롭게 다루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광주일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언론사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죽기 전까지 늘 광주일보와 함께 하겠다”는 그는 “광주일보가 ‘광주·전남 사람을 위한 신문’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기를, 그리고 내년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광주일보를 펼쳐든다’는 30년 애독자 배운수씨가 화순군 화순읍 대리의 집 거실에서 광주일보를 읽고 있다. /화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함평골프고 골프실습장 네번째 반려 광주 예술고 이설 규모 축소 조건 추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문도 초교 통폐합은 ‘적정’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 건설이 네 번째 정부 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광주 예술고 이설 사업도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자체 투자’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사업 추진이 다소 더뎠다.

다만, 여수지역 숙원사업이던 거문도 내 2개 초교와 3개 분교를 2019년까지 거문초교(가칭)로 통폐합하는 방안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19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열린 ‘경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결과, 광주교육청의 ‘광주 예술고 이전’과 ‘효천 1초교(가칭) 신설 사업’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뒤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1년까지 830억을 들여 광주시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토지 3만6938㎡)에 예술고를 옮겨 짓겠다는 광주교육청 구상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축소 및 지자체 투자 ▲예술·스포츠 통합 등 종합운영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또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광주시 남구 임암동 483번지 일대 효천 1도시계

발사업지구에 36학급 규모로 초등학교(1만2214㎡·사업비 212억)를 신설하는 ‘효천 1초교 신설사업’도 ‘학급 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남교육청이 의뢰한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18홀)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운영 계획을 세울 것’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정부 교부금을 받아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데다, 네번째 심사에서도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남양신도시 오동지구 내 ‘가칭’ 행복초·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개발 추이를 고려한 설립시기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다만, ‘순천 삼산중 이설’, ‘혁신도시 내 매성중·고등학교 신설 및 재배치’ 사업의 경우 각각 ‘자체 재원으로 추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여수지역 숙원사업이던 거문도 내 2개 초교와 3개 분교를 2019년까지 가칭 ‘거문초교’로 통폐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적정’ 판단을 내려 향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

국과수 “부채꼴 모양 탄흔... 헬기 기관총 좌우로 흔들며 쏘았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 브리핑 헬기 사격 탄환은 발견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공개한 전일빌딩 총탄흔적 감정서(2차 법안감정서)에서 “이미 발견된 탄흔 각도로 보아 헬기에서의 사격 정황은 변함없으나 사용 무기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불능”이라고 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그러나 브리핑 자리에서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은 금남로 상공에 떠 있던 헬기에 거치된 기관총으로 좌우로 사격에 의한 것이라 보고는 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단언했다.

국내 총기·탄약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 실장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감정서를 넘어 기총소사라고 언급한 이유는 ‘총알’이라는 구체적 물증만 없을 뿐이지, 2차 현장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판단에 확신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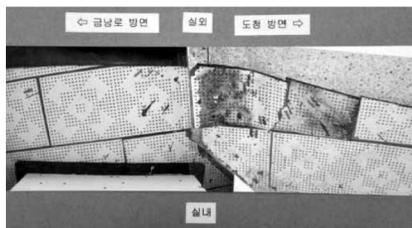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창가로 자리를 옮긴 뒤 “이 유리창 앞쪽에 헬기가 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거지매 있던 기관총을 좌우로 이동시키며 쏘고 봐야 한다. 그레이트 부채꼴 내지 방사형으로 탄흔들이 쏙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10층 천장 텍스에서 식별된 탄흔의 개수, 탄흔 생성 방향(부채꼴 내지 방사형), 당시 출동했던 헬기 종류와 장착 무기 등을 종합하면 소총방이 총을 들고 쏘는 이러한 탄흔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그러나 예초 올 초 1차 감정서를 내놓기 전부터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을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환이라는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감정서에 적지 않았고 기총소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탄환 발굴을 목표로 2차 조사를 내걸었다.



김동환(오른쪽에서 세번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안전실장이 19일 계엄군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동환 실장이 총탄 흔적에 대해 헬기 기관총을 좌우로 이동시키며 쏘는 탄흔이라고 언급할 수 있었던 사진, 천장 텍스와 바닥에 떨어진 텍스의 사진을 조합했을 때 나타난 탄흔 생성 방향이 한 지점에서 좌·우 방사형으로 펼쳐진 일정한 형태를 보여준 모습. <국과수 제공>

김 실장은 입장을 바꿔 “기총소사 흔적이 유력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설명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국과수가 지난 1월 내놓은 1차 감정서에서 “천장 텍스에서 식별되는 탄흔 생성방향을 고려하면 UH-1 헬기 양쪽 문에 거치된 M 60 기관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썼으면서도, 기총소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계엄군 헬기가 쏜 탄환을 발굴해 헬기 기총소사를 명확히 한다는 목표로 이뤄진

2차 전일빌딩 조사(3월 27~29일)에서는 지난 1980년 5월 도청 진압작전에 나선 공수부대와 교전을 한 시민군이 쏜 총탄 흔적도 처음 발견됐다.

건물 후면(동부경찰서 방향)에서 발견된 17개의 총탄 흔적 일부가 카빈 소총탄의 흔적으로 판명된 것이다. 국과수는 “구경 5.56mm 또는 7.62mm 소총탄은 탄환 끝 부분이 뾰족해 새겨진 함몰 흔적이 나타나는데 반해, 구경 0.3인치 카빈 소총탄의 경우 끝 부분이 둥글어 반구형 함몰 흔적이 생겨나 구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도청 진압작전에 나서면서 전일빌딩에도 공수부대를 투입시켰고 건물 후면 옛YWCA에 있던 시민군들은 카빈총을 들고 맞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 05:54 🌧️ 01:50
☀️ 19:09 🌧️ 12:33

☀️ 흐릿한 하늘

☀️ 대체로 흐리고 낮 한 때가 오는 곳이 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10/17	보성	10/17
목포	11/16	순천	9/17
여수	11/17	영광	8/15
나주	7/17	진도	10/16
완도	11/18	전주	9/16
구례	6/15	군산	8/15
강진	8/17	남원	7/16
해남	9/17	홍산도	9/15
장성	7/15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파고(m)	상태
서해	남동	0.5	북·북동
	남서	0.5~1.5	북·북동
남해	남동	0.5~1.0	남·남동
	남서	0.5~1.5	남·남동
제주	남동	1.0~1.5	남·남동
	남서	1.0~1.5	남·남동

☀️ 생활지수

지수	간조	만조
경고	00:28	08:02
식중독	14:09	20:21
보통	10:15	03:17
낮음	21:46	15:57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1(금)	☀️	8/17
22(토)	☀️	8/22
23(일)	☀️	8/22
24(월)	☀️	9/22
25(화)	☀️	10/20
26(수)	☀️	11/20
27(목)	☀️	9/22

세월호 4층 객실서 스마트폰 1대 추가 발견

전문업체에 복원 의뢰키로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 이틀째인 19일 스마트폰 1대가 추가로 발견됐다.

스마트폰 복원이 가능한 진상규명의 단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스마트폰 1대를 수거해 선체조사 위원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노트북·블랙박스 등 디지털 정보기기는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어 다른 유류품과 달리 수거 즉시 선체조사위에 인계된다.

선체조사위는 “발견된 휴대전화는 팬택의 ‘베가’ 기종으로 현장 관계자들이 산화 방지를 위해 종류수에 보관 중”이라며 “민간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에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휴대전화는 전날부터 선내 수색이 진행 중인 세월호 4층 A데크 선수부 객실 부

광양서 문재인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나서

광양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가 나섰다.

19일 오전 9시께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에 걸린 문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된 현수막은 문 후보의 얼굴 사진이 날카로운 흉기에 의

폭발물 의심 택배에 대피 소동...알고보니 폭죽

○광주의 한 창업지 원센터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택배물이 배달돼 군·경 수십명이 출동하고 센터 이용자 6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3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

이플렉스 5층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택배물이 배달됐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돼 경찰특공대 폭발물감식반·소방구조

대 등 30여명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감식을 진행했는데, 감식 결과 택배물 안에는 다이내마이트 모양의 폭죽 다발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이 아닌 폭죽으로 확인돼 이날 정오께 비상상황을 해제하고 철수했다”며 “허위 폭발물을 보내 혼란을 일으키고 경찰력을 낭비케 한 범인을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